



# 해외양돈뉴스

- 홍 보 부 -

## 일본 98년의 돈가예상, SG발동은 없고, 95년수준으로

대만산 돈육의 수입금지가 계속되는 상황하에 대만에서의 돈육수입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행되어 약 60만톤의 수입이 예측되고 있는데 98년에는 SG발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8월 3월간의 가격전망은 500엔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고 가을에는 가격하락이 빨리 이루어져 11월에는 400엔을 약간 하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97년도는 년초 SG발동, 대만의 구제역 발생, 8월의 감면조치, 대형도산에 의한 개인소비의 위축 등 종전에 경험 못한 불투명한 했었지만 그런 상황하에서 식육통신사가 지난 97년 12월상순에 한 '1998년의 돈가 앙케이트'에서 보면 돈육소비 및 육돈출하의 '국내수급'은 전년과 같거나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물량은 97년도는 구제역관계로 혼란했음으로 전년을 상회한 59만4천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SG발동은 없을것으로 예측하고 돈육가격은 95년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량은 풍부하지만 말단소비는 국산육과 브랜드육의 비중이 높을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돼지고기 가격 상승

지난 2월 12일, 동경 식육시장의 지육시세의 반등으로 이전주에 비하여 22엔 오른 kg당 4백8엔에 거래되었다. 일시적으로 안정 기준가격(3백85엔)을 밑돌았으나 결국 4백엔대를 유지하였다. 이같이 시세가 반등한 것에 대하여 JA전농 중앙

축산센터는 추위로 돼지의 발육이 늦어졌고 전주의 시세 급락으로 생산자들이 출하를 억제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많은 업계관계자들은 이날 시세가 앞으로의 돼지고기 시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돈육가격의 4백엔대 진입에 크게 고무되어 있다.

## 수입 동물검역절차 완화 검토

일본 총무청은 수입축산물의 검사방법 등을 완화해 줄 것을 농수성에 권고했다. 총무청은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청정지역에서 수입되는 축산물 검사를 샘플링 검사로 완화하는 한편 수입수속의 간소화 및 신속화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일본 검역당국은 현재 청정지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햄, 소시지, 베이컨 등에 대해서는 신청건수의 대략 30%를 대상으로 한 샘플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신청건수 모든 건에 대해 현물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총무청은 이를 청정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육, 장기류에 대해 모든 건에 걸친 현물검사를 샘플링 검사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 동경 '98 식육산업전' 개최

최신 시육정보와 관련된 기기 및 자재를 한자리에 모아 열리는 '98 식육산업전'이 3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동안 동경에서 개최된다. 이번 식육산업전은 8개 단체, 1개 신문사로 구성된 식육산업전 실행위원회가 주최하고 후생성을 비롯, 농축산업진흥사업단 등 13개 단체가 후원하게 된

다. 식육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총 90여개사가 참가하게 되는 이 식육산업전에는 출품할 각 회사의 국산식육 등을 비롯한 신제품 전시 발표회와 함께 각종 신기술이 선보이게 되며 '전국 명품 식육페스티벌', 'HACCP제도 대응전' 등의 이벤트도 기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와 별도로 세미나를 개최, 'HACCP로부터의 실천적 대응', '소비자로부터 본 식육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등에 관한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4만여명의 방문객을 예상하고 있다.

## 미국 옥수수 수확량 증가, 98년의 돈육생산 9% 증가 전망

미국 농무성(USDA)이 발표한 97년의 옥수수 수확량에 대한 11월 예측에서는 약 2억3천772만 톤으로 예상되어 있다. 이것은 작년 10월에 예측한 약 2억3천652톤보다 많은량으로 사상 3번째의 높은 수량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USDA가 1998년의 식육수급예측을 발표한 내용에서 보면, 98년 돈육은 839만톤으로 동 8.5% 증가가 예측되고 있는데 97년 중반까지 순조로웠던 생산자이익과 사료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축종중 최대신장이 예측되고 있다. 98년의 브로일러는 동 6.8%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오히려 쇠고기는 2.2%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시행

미국의 식품 검사제도에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가 지난 1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미 농무부 덴 글릭먼 장관은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육류검사제도인 위해요소 중점관리 제도의 시행을 지난 1월 26일부터 적용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행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육류를 포함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총 312개의 대규모 육가공 처리시설이

HACCP를 도입하게 되며, 이 시설들은 미국내에 있는 육류와 가공육의 가공 처리시설의 75%에 달하는 것이다.

글릭먼 장관은 "이 새로운 제도가 지난 90년간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었던 오래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일 수출감소를 대러시아, 멕시코, 홍콩에 중·저급육 수출로 만회

미국 국내소비 부진과 대일 수출감소로 인한 돈가저하로 중·저품질육을 대러시아, 멕시코, 홍콩 수출용을 중심으로한 cut육, 트리밍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98년 돈육 수출총량은 전년 대비 8%증가가 예측되는데 그 대부분은 저소득국에 대한 저가격부위가 될 전망이다. 1~8월의 생돈수입은 200만두로 전년비 12%증가하였으며, 거의 전량이 캐나다산이다. 미국의 공급감소와 가격상승으로 5월까지의 전년을 상회하는 수입추이였으나 그 이후는 감소하고 있다.

98년은 미국내의 공급증가 예측으로 생돈수입이 97년보다 적은 260만두로 예측되고 생돈가격은 100kg당 88.2\$ 전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미국 농산물 수출 타격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인해 미국의 농산물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97년 12월 통계자료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인해 1997/98회계년도(10월/9월) 동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5억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의 조셉 글로버 부수석 경제학자는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화위기는 현재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엘니뇨 현상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 대만 돼지 사육두수 8백만두, 구제역 정보 다 26% 감소

1997년 11월 현재 조사한 대만의 돼지 총 사육두수에 따르면, 총 사육호수는 2만454호로 지난 7월 조사분에 비해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구제역 발생 이전인 96년 11월 조사에 비해 19.3%로 격감한 수치다. 이에 따라 총 사육두수도 7백96만6천8백87두로 6.6% 감소해, 구제역 발생 이전인 96년 11월 조사에 비해 25.5% 격감했다. 이번 11월 통계자료는 작년 3월 19일 구제역 발생 이후 7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 11월 조사 이후 12월 8일 또 구제역이 재발해 그 후 방역대책에 따라 도태된 두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육두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만의 최근 비육돈 생체 도매가격은 97년 1월 상순 현재 5천원대(한화 약 16만원)였던데 비해 2천원 내린 3천원(한화 약 9만6천원) 전후가 되고 있다.

### 축산업자들 미국산 곡물수입 거부

대만의 축산업자들은 미국이 대만에 대해 농업부문 교역에서 양보조치를 발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곡물수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대만 농축산업협회의 첸 칭치 대변인이 지난 2월 6일 말했다.

그는 대만의 축산업계가 이번주초 미국산 옥수수 5만톤의 수입신청을 취소하고 대신 이 물량을 아르헨티나 곡물업자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만은 미국의 세 번째 큰 곡물 수출국으로 연간 1천만톤(22억달러) 상당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중 97%가 미국산이다.

## E U 독일산 돼지 금수조치 움직임

독일에서 돼지 콜레라가 확산됨에 따라 벨기에 정부당국이 19일 독일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

을 금지한데 이어 유럽연합(EU)은 독일산 돼지고기 금수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회 수의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브뤼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이 위원회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바링도르프 부위원장은 “금수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농업장관은 EU의 금수조치가 독일의 모든 돼지고기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지만 감염된 지역의 돼지들만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 유전공학식품 라벨부착계획에 업계 강력 반발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전공학 생산제품에 대한 라벨부착 의무화 계획에 대해 식품산업계의 반대가 거세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집행위원회의 계획이 식품에 대한 보다 분명한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유럽 식품과 음료업 협회(CIAA)와 유럽 유지종자유 제조업 협회(FEDIOL)를 비롯한 식품업계에서는 라벨 부착을 주로 유전자 조작 DNA의 함유여부에 따라 결정하려 하고있는 집행위원회의 견해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 중국 돼지고기수출 활성화

중국은 주변국가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에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분석하고 수출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관계당국이 분석한 수출여건의 변화를 보면 우선 일본의 돼지고기 가격이 공급부족으로 상승하고 있다. 돼지고기의 주공급원이었던 대만이 전염병으로 대일수출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일본은 다른 수입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도 최근 중국 돼지고기의 수입을 개방

했다. EU는 지난 96년말부터 중국산 육류의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육류와 가금육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태국에서도 국내시장 안정용으로 중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해의 냉장 및 냉동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은 톤당 1만2800원과 1만1천원으로 지난 12월에 비해 300원과 700원이 각각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농민들은 옥수수사료 가격의 하락으로 양돈 의욕이 고취되고 있다.

### 세계 곡물시장에 영향력 증가 예상

향후 10년간에 걸쳐 중국은 세계 곡물시장에 미국, 캐나다, EU 등과 같은 주요 곡물 수출국이나 수입국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영향력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곡물수입은 꾸준히 증가해 2,000~3,000만톤 사이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황 지쿤 중국 농업정책센터장은 1월 초 개최된 옥스퍼드 농업 회의에서 이같이 예상했는데,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곡물수입이 2005년까지 현재의 900만톤에서 2,400만톤으로 2010년까지 2,700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독일 돼지콜레라 확산우려 6만마리 도살

유럽 일부국가가 돼지 콜레라의 확산을 우려, 독일산 돼지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독일 정부는 돼지 약 6만마리를 도살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 21일 발표했다.

독일 농업부 관리들은 대규모 도살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인했으며 니더작센주의 카를 하인츠 풍케 농업장관은 "돼지 대부분이 콜레라에 걸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방 조치로 8천마리를 골라

도살했다"고 밝혔다.

독일 북동부 지역의 양돈업자들과 정치인들은 유럽 전체가 독일산 돼지 수입을 금지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최근 독일산 돼지 수입을 금지했으며 포르투갈은 스페인산 돼지의 수입을 금지했다.

돼지 콜레라는 독일 동부 대규모 양돈장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는 인간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프랑스 대일본 수출확대 계속노력, 생산은 증가추세

프랑스의 97년 돈사육두수는 1천540만두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다.

96년 8월 생산자 이익 추정에 이용되는 ITP치(돈가격과 사료가격의 비율로 산출)가 과거 7년간 최고치를 기록, 사육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돈가는 전년대비 4월은 낮고 5월은 상승, 6월은 낮고 10월은 다시 전년을 상회하고 있다.

98년에도 돈사육증가가 예측되고 있어 전년대비 5만톤 증가한 228만톤으로 예측되고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의 돈콜레라와 대만의 구제역 등으로 프랑스 돈수출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프랑스의 돈육수입은 감소한 반면 돈육, 생돈수출시장 기회가 넓어져 종래부터 강했던 대일본 수출의욕이 대만의 구제역으로 더해지고 있다.

### 덴마크 지난해 1~9월 생돈수출 83만7천두, 최대수출선은 독일

덴마크의 생돈수출이 지난해 1~9월에 83만6천7백두에 달해 전년동기보다 30만두 상회하고 있다. 연간 100만두 수출이 확실시되며, 그중 자돈이 71%를 점유한다. 최대 수출선은 독일이며, 독일은 현재 종래의 대수입선인 네델란드로부터 콜레라로 인해 수입이 안되고 있음에 따라 덴마크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養豚**